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윤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미-이란 전쟁 노이즈에도, AI 및 반도체 모멘텀으로 강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국내 휴장기간(4~5일) 미국 증시는 미-이란 휴전 협상 노이즈에도, 관련 증시 충격은 제한된 가운데 AI 및 반도체 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(2거래일 누적 등락률: 다우 -0.4%, S&P500 +0.4%, 나스닥 +0.8%)

4일(월) 이란의 UAE에 대한 드론 공격 등에 따른 중동 불확실성 재확대 여파로 유가 급등, 미국 금리 상승 등이 출현함에 따라 약세를 보였으나, 5일(화) 미 국방부 장관의 휴전 유지 발언으로 인한 유가 상승 진정, AI GPU 및 CPU 수요 급증 전망 및 메모리 업사이클 강화 기대감에 따른 마이크론(+11.1%), 샌디스크(+12.0%), 인텔(+12.9%)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(+4.2%)이 지수 반등을 견인.

5일 미 국방부 장관이 휴전은 유지될 것이라는 언급에도, 최근 UAE에 대한 이란의 공격 논란(이란 측은 부인),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규제 도입(이란을 통한 사전 허가), 트럼프의 주 후반 전쟁 재개 가능성 발언 등 전쟁 노이즈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. (전일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) 그 여파로 WTI는 100달러 위에 있으며, 미 10년물 금리도 4.4%대를 상회하고 있는 등 매크로 상 부담요인은 잔존하고 있는 상황.

그러나 현재는 1분기 실적시즌이 진행 중이며, 3~4월 중 우려했던 것보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선방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충격을 완충시키고 있는 모습. 가령, Factset 데이터상 실적 발표한 미국 S&P500 기업 중 85%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는 점이 그 증거.

물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팔란티어(-6.9%)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급락하긴 했으나, 현재는 소프트웨어보다 메모리, 하드웨어 주식들이 견인하고 있는 장세임. 이런 측면에서 미국 장 마감 후 AMD(+4.0%)가 AI 수요 호조에 따른 CPU, GPU 가속화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 및 가이드언스를 상향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10%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은 금일 국내외 주요국 증시에 전쟁 불확실성을 상쇄시켜주는 재료가 될 전망.

전 거래일(4일) 코스피는 지난 휴장 기간 중 미국 하이퍼스케일러, 샌디스크 등 빅테크 어닝 서프라이즈, CAPEX 상향, 미-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 등 긍정적인 대외 환경 속 외국인 2.9조원대 순매수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5%대 강세로 마감(코스피 +5.1%, 코스닥 +1.8%)

금일 코스피는 미-이란 전쟁 노이즈발 높은 유가 및 금리 레벨 부담에도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%대 강세, AMD의 시간외 주가 급등 효과 등이 외국인의 수급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7,000pt 돌파를 시도할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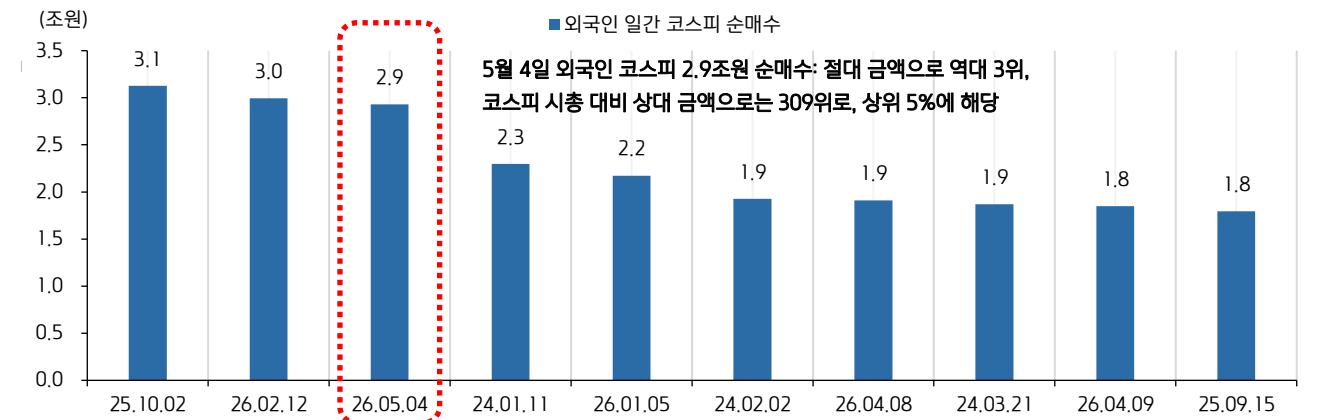
현재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월 월간 4.4조원대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5월 첫 거래일부터 역대급 순매수를 기록(5월 4일 외국인 코스피 일간 순매수 금액 2.9조원, 이 중 반도체 순매수 금액은 2.8조원으로 전체 순매수의 96%를 차지). 외국인의 이 같은 2.9조원 순매수는 2025년 10월 2일(+3.1조원), 2026년 2월 12일(+3.0조원)에 이어 2000년 이후 역대 3위의 순매수 금액을 경신한 것임(이전 3위는 2024년 1월 11일 +2.3조원).

물론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금액으로 계산 시 순위는 내려가기는 함. 그 비중은 0.05%로 역대 309위에 해당되는 등 절대 규모에 비해 상대 규모 순위는 하락하지만(3위 → 309위), 상위 5% 내에 해당되는 순매수 비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. 동시에 외국인 수급은 1) 투자심리상 다른 주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, 2) 단기 고점 부담이 있는 반도체의 신고가 경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, 4일 2.9조원대 순매수는 유의미하다고 판단.

더 나아가, 절대 금액 기준 상위 10위까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이후 코스피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, D+5일 +3.0%, D+10일 +3.3%, D+20일 +5.8%로 집계되는 등 지수 모멘텀이 연장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. 일간 5%대 폭등했기에, 주중 남은 기간 숨고르기 압력, 혹은 외국인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 직면할 가능성 상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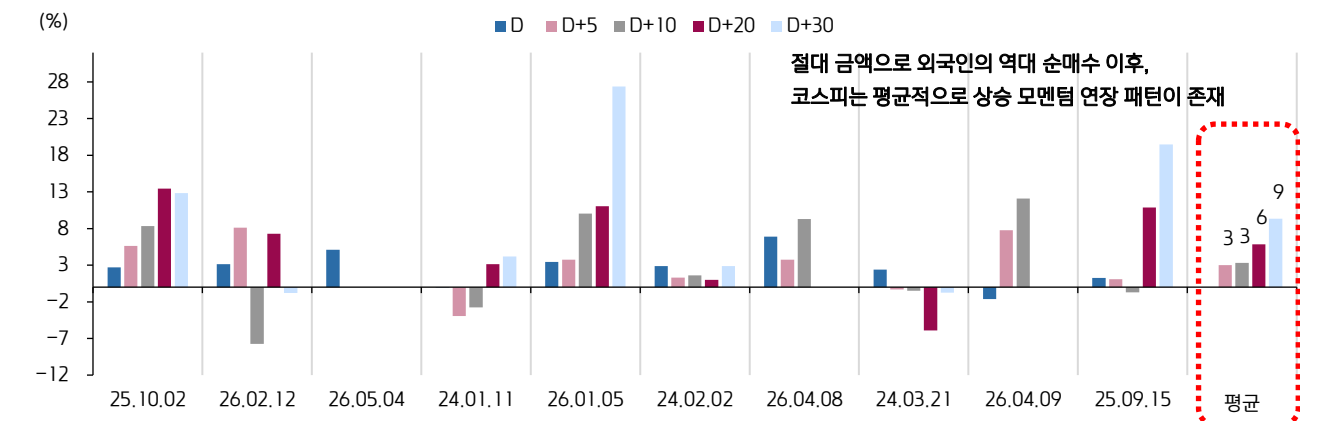
그러나 1분기 실적시즌 이후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 가속화는 현재 진행형이며, 이전 역대급 순매수일에 비해 절대적인 이익 레벨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상황(ex: 4일 기준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860조원대 vs 1개월 전 660조원대, 4일 기준 선행 PER 7.16배 vs 1개월 전 7.75배). 이를 고려 시, 중기적으로 AI 밸류체인 등 “주도주 중심의 코스피 우상향 추세, 외국인 순매수의 연속성”을 대응 전략의 기본 가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.

2000년 이후 절대 금액 기준, 외국인 코스피 역대 순매수 순위: 이번 5월 4일 2.9조원 순매수는 역대 3위에 해당.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중으로 보면, 0.05%로 역대 309위로 내려가지만, 이 비중 조차 상위 5%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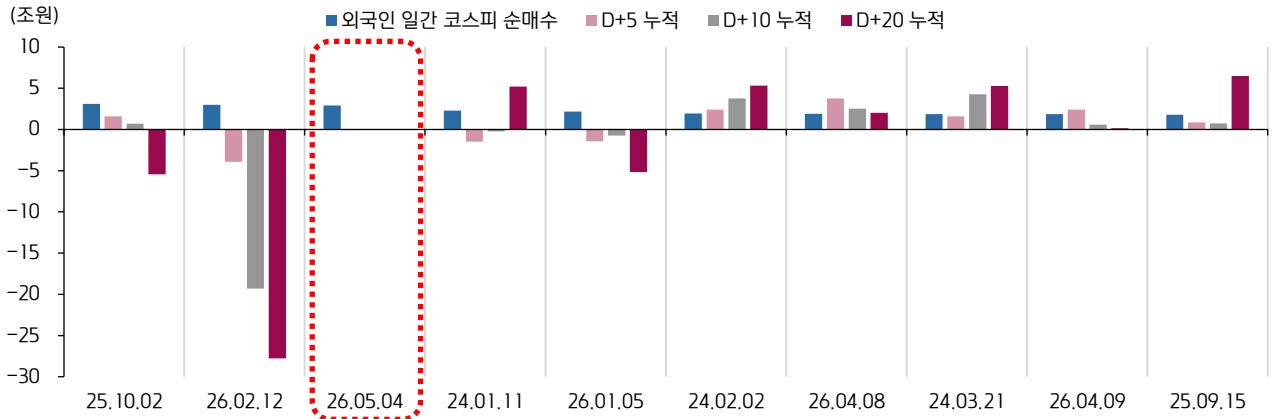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외국인 역대 순매수 상위 10위 기준, 순매수 이후 코스피 평균 주가 흐름: 평균적으로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지수 상승 모멘텀을 연장시키는 경향 존재


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외국인 역대 코스피 순매수 이후 시간 흐름 별 누적 순매수 변화: 2위에 해당하는 올해 2월 당시에는 이후 한달 동안 30조원대 누적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음. 향후 외국인의 순매수 연속성은 전쟁 불확실성 완화, 이익,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변화에 달려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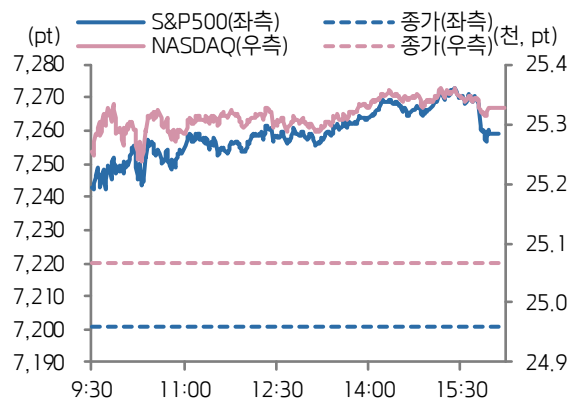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코스피 12개월 선행 PER: 지수가 7,000pt 근처까지 상승했음에도, 선행 PER은 7.1배수준에 불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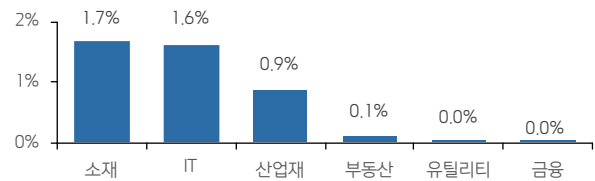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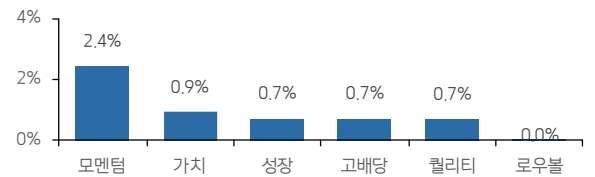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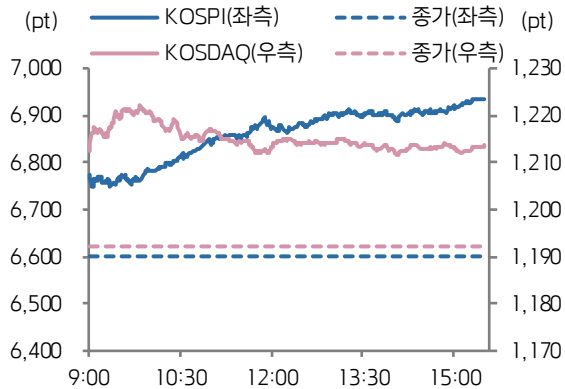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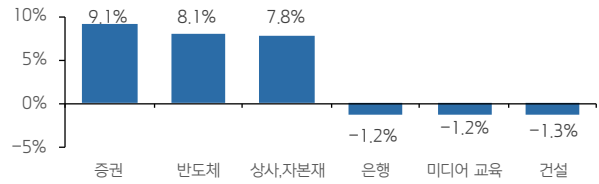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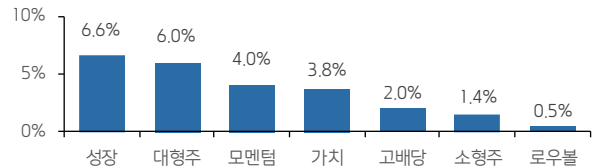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증가	DTD(%)	YTD(%)	종목	증가	DTD(%)	YTD(%)
애플	284.18	+2.66%	+4.53%	GM	76.15	+0.59%	-6.36%
마이크로소프트	411.38	-0.54%	-14.94%	일라이릴리	988.87	+2.16%	-7.98%
알파벳	388.43	+1.35%	+24.1%	월마트	130.79	+0.35%	+17.4%
메타	604.96	-0.89%	-8.35%	JP모건	309.40	+0.57%	-3.98%
아마존	273.55	+0.55%	+18.51%	엑손모빌	154.88	+0.77%	+28.7%
테슬라	389.37	-0.8%	-13.42%	세브론	192.64	+0.19%	+26.4%
엔비디아	196.50	-1%	+5.36%	제너럴일렉트릭	130.79	+0.4%	+17.4%
브로드컴	427.36	+2.61%	+23.48%	캐터필러	904.59	+3.41%	+57.9%
AMD	355.26	+4.02%	+65.89%	보잉	224.38	+1.39%	+3.34%
마이크론	640.20	+11.06%	+124.31%	넥스트에라	96.28	+0.8%	+19.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6,936.99	+5.12%	+64.61%	USD/KRW	1,476.50	-0.07%	+2.57%
코스피200	1,049.66	+5.8%	+73.22%	달러 지수	98.48	+0.11%	+0.16%
코스닥	1,213.74	+1.79%	+31.15%	EUR/USD	1.17	+0.02%	-0.45%
코스닥150	2,035.47	+1.81%	+31.55%	USD/CNH	6.83	-0.05%	-2.12%
S&P500	7,259.22	+0.81%	+6.04%	USD/JPY	157.88	+0.41%	+0.75%
NASDAQ	25,326.13	+1.03%	+8.97%	채권시장			
다우	49,298.25	+0.73%	+2.57%	국고채 3년	3.615	+2.2bp	+66.4bp
VIX	17.38	-4.98%	+16.25%	국고채 10년	3.933	+1.8bp	+54.8bp
러셀2000	2,845.00	+1.75%	+14.63%	미국 국채 2년	3.940	-1.2bp	+46.7bp

필라. 반도체	10,980.58	+4.23%	+55.02%	미국 국채 10년	4.424	-1.4bp	+25.7bp
다우 운송	20,020.25	+2.11%	+15.34%	미국 국채 30년	4.988	-2.7bp	+14.4bp
상해종합	4,112.16	+0.11%	+3.61%	독일 국채 10년	3.063	-2.4bp	+20.8bp
항셱 H	8,730.49	-0.5%	-2.06%	원자재 시장	가액	DTD(%)	YTD(%)
인도 SENSEX	77,017.79	-0.33%	-9.63%	WTI	102.27	-3.9%	+79.39%
유럽, ETFs	가액	DTD(%)	YTD(%)	브렌트유	109.87	-3.99%	+80.56%
Eurostoxx50	5,869.63	+1.84%	+1.35%	금	4,568.50	+0.78%	+3.67%
MSCI 전세계 지수	1,084.23	+0.56%	+6.86%	은	73.11	+0.05%	+3.55%
MSCI DM 지수	4,647.10	-0.58%	+4.89%	구리	594.30	+2.55%	+4.59%
MSCI EM 지수	1,648.61	+2.95%	+17.39%	BDI	2,730.00	+1.64%	+45.44%
MSCI 한국 ETF	173.47	+6.04%	+78.43%	옥수수	480.00	-1.18%	+5.61%
디지털화폐	가액	DTD(%)	YTD(%)	밀	627.75	-2.07%	+18.16%
비트코인	81,646.90	+2.14%	-6.85%	대두	1,211.50	-0.92%	+12.78%
이더리움	2,382.11	+1.38%	-20%	커피	289.75	+1.49%	-11.1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5월 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